

## 9 장\_청주민예총

### 소리굿, 몸짓

오늘로 아이들을 만난 지 15주가 됐습니다.

이제 겨우 아이들과 친해졌는데 벌써 프로그램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만날 풍물패의 연습실에 들어서는데 이런 저런 질문이 튀어나와 머릿속을 파고 듭니다.

‘아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과연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얼른 답이 떠오르지 않아 착잡해진 심경을 털어내려고 부지런히 복을 읊습니다. 아직 수업을 시작하려면 꽤 기다려야 하는데 아이들이 속속 연습실로 들어섭니다. 엄마 혹은 복지관 선생님의 손을 잡고 이 교실에 들어선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타인과 어울리는 게 많이 서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번 이 곳에 오는 것만큼은 잊지도 않고, 빨리 가자며 조른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어머니들의 얼굴이 거침없고 아주 밝은 걸 보면 듣기 좋으라고 건네는 말치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뜨고 환한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착잡해졌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다시 작은 바람이 채워집니다.

‘그래, 오늘도 여기 모인 이들이 모두들 잘 놀다 갔으면 좋겠다!’

## 그런데 왜 풍물이어야 하는가?

사람들은 풍물이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치유효과를 줄 수 있는냐고 질문하곤 합니다. 저 역시 그 질문에 대해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런 프로그램이 시도되었던 적은 없었으니까요.

대학원에서 타악연희와 예술치료를 공부하면서 전통문화, 그 중에서도 특히 굿과 풍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터라 이 프로그램의 강사를 제안 받았을 때 그 누구보다 적임자라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고민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내면의 표현 욕구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들이 타인과 관계하면서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을까?’

많은 시간 고민이 이어졌지만, 오히려 그 대답은 ‘왜 풍물이어야 하는가?’를 스스로 재인식하는 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왜 풍물이어야 하는가?

1. ‘집중’을 유발하는 굿의 치유 효과가 있다.
2. 타악기가 가지고 있는 흡인력이 있다.
3. 멈춤, 흐름, 고요와 정적, 발산을 반복하는 타고의 에너지와 함께 내면의 세계를 폭발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4. 단순성 때문에 장애 정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움직임과 이동이 빈번하게 이뤄진다.
6. 풍물의 놀이적 성격과 하나로 묶는 힘.

7. 악기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구이다.
8. 풍물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9. 풍물은 그 자체로 치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0.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빨리 회복할 수가 있다.
11. 개별적 치료가 집중되는 현실에서 풍물을 통해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다.
12. ‘원이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개념을 인식할 수 있다.

아이들은 이제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며 둘러앉습니다.

아이들 사이사이에는 엄마와 선생님들이 자리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저와 보조선생님 역시 그 원의 한 점을 차지하고 앉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내가 이걸 왜 견뎌야 하나?’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견뎌내는’ 대신 ‘즐기기 위해’ 이 교실을 찾아옵니다. 견딜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견뎌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예술교육이라고 했던 선배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지난 15 주 동안의 성과가 그리 초라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잠깐 우쭐해집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엄마와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다 해도 불안해 하지 않고, 풍물의 장단에 빠져들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누가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저의 질문이 바보처럼 교실을 울렸지만, 이젠 자신만의 독주를 하겠다는 아이들 때문에 수업시간이 늘어지는 것을 걱정할 지경입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으로 서울 가는 버스를 몇 대나 떠나보내야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는 건 분명 행복한 일입니다.

북을 두드리기까지, 아이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같이 해보자.”

“.....”

“승연이가 한번 해볼까?”

“.....”

아이들은 엄마 뒤에 숨어 허공에 눈을 맞출 뿐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 나서본 적이 없는 아이들, 서로가 함께 마주앉아 있는 것조차 어색하기만 한 아이들에게 ‘지시 따르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신나는 풍물로 아이들의 귀를 뚫어주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귀조차 짝 막아버렸습니다. 눈치를 살피거나, 귀를 막거나, 엄마 뒤에 숨거나. 그것이 아이들 반응의 전부였습니다.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맞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어머니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마냥 힘들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들과 함께 신나게 난타를 즐겨 보는 거야!**

커다란 북 앞에 선 엄마들은 마음 속의 양금을 풀어버리려는 듯 신나게 북을 두드렸습니다. 풍물패의 연습실에는 기운 찬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채를 잡고 흔들 줄만 알았던 아이가 북을 두드리는가 하면, 장단에는 관심이 없던 아이가 엄마의 장단을 슬금슬금 따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엄마가 북을 치자 아이들이 북을 치고, 엄마가 미소 짓자 아이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지자 아이들이 행복해졌습니다.

**엄마에게도 풍물이 필요했습니다.**

흔히들 엄마가 이렇게 아이들과 동반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특수 아동’을 위한 ‘특별 수업’의 보조자 역할을 할 거라고 상상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수업에서만큼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이들과 똑같이 풍물이라는 예술활동을 통해 지친 마음을 달래고 예술교육의 효과를 체험할 권리가 있기에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풍물을 배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누구도 이런 성과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풍물은 그렇게 엄마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굳은 표정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루종일 아이와 씨름을 해야 하고 정작 아이와 몸과 눈을 맞대고 놀아줄 시간은 단 한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지만, 그 속에서 아이에게 규제와 교육만 강요하던 엄마들에게 일주일에 20 분, 마음껏 복을 두드리는 이 시간이 일상의 탈출구이자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 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둥글게 원을 그리고 앉았지만 친구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인사할 줄 알지만 친구에게 인사할 줄 모릅니다. 아이들은 곁에 있는 다른 아이의 엄마에게는 인사를 하지만 그 곁의 친구에게는 인사할 줄 모릅니다.

이 곳에 모인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 복지관 선생님 그리고 엄마 혹은 다른 가족 중에서 누구든지 한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끼리는 어울리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돼 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13 주째가 돼서야 비로소 아이들의 손을 맞잡게 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서로에게 관심도 없는 듯 보입니다.

아이들은 서로 격려할 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어떤 말에도,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없었던 승연이는 이제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두운 얼굴로 유난히 엄마 마음을 애태웠던 지해도 이 연습실에 들어설 땐 새침한 얼굴로 친구들을 모른 체 하지만 사실은 이 수업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엄마가 살짝 전해 주십니다.

사춘기를 맞은 승연이와 보람이는 요즘 부쩍 미소가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좋아하는 친구가 생긴 모양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감춰진 ‘소망’ 이 있습니다.**

말이 없는 진우는 아무리 큰 북소리에도 관심이 없던 친구입니다. 그런 진우가 어느 날 유심히 한 악기를 바라보더니 슬그머니 그것을 집어 들어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진우는 그렇게 작은 목탁을 좋아하게 됐고, 4 개의 작은 목탁은 진우만의 전용 악기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진우는 원 한가운데서 혼자만의 연주를 시켜도 머뭇거리는 법이 없습니다.

승연이 역시 원 한가운데로 나서지 못했던 친구입니다. 그저 몇 발짝 앞으로 나서면 되는 것을 승연이에게는 그조차 무척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그런 승연이가 어느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해 볼래요!”

승연이는 북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 나와 힘차게 외칩니다.

“대~한민국! 둥둥둥 둥둥!”

지금까지는 혼자서 맘속으로만 외쳤지만, 이제 승연이는 친구들과 함께  
힘차게 응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올 6 월에는 친구들과 함께 광장에서  
‘대~한민국!’을 외치겠죠?

이 동그런 원 밖에는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 또 있습니다.

하마터면 잊을 뻔 했습니다. 이 동그런 원 밖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학교 선생님 세 분과 복지관의 선생님 다섯 분도 묵묵히  
아이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 한 달에 두 번씩 모여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아이들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촬영한 영상을 함께  
보기도 합니다. 물론 새로운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토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참신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열의는 뜨겁고 진지했습니다.

그 분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저 역시 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사로서 아이들의 반응을 빨리 인식하는 순발력뿐 아니라,  
아이를 기다려 주는 태도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강사  
스스로 자신의 기획과 목표에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맞춰 나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들이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겨우 첫 걸음이지만,  
아주 큰 의미가 담긴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아쉬운 한시간이 찰나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인사를 나누고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아이들보다 더  
신명이 났던 마음을 달래고, 가슴 한 켠에 스며드는 아쉬움을 배낭에  
구겨넣습니다. 아이들은 또 일주일 동안 나름의 전쟁을 치를 테고, 엄마들도  
그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씨름을 하겠지만, 풍물패의 연습실에 다시 모이는  
날엔 또 다시 환하게 인사를 건네겠죠. 그리고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서  
어김없이 이 아이들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잠길 겁니다.

‘통합교육을 받는 친구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아이들이 가족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과연 가능할까?’

‘다음 기회에는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청주 혜원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된 정신지체아동과 학부모, 교사와 함께한 ‘소리긋 몸짓 치유 프로젝트’

(사)청주민예총